

# 조선왕 4명중 1명이 독살당했다? ... 누가 왜 왕을 죽였나



영월에는 단종과 관련된 설화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는 그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대부들과 민초들의 시선을 대변해 준다.



## 조선 왕 독살사건(전2권)

이덕일 지음

“평 고기는 종기와 상극이었다. 꿩이나 닭, 오리 등은 껍질에 기름이 많아서 종기 환자에게는 절대 처방하면 안 되는 음식이었다. 그래서 한 의학에서는 종기 환자에게 평을 처방하는 것을 독살의 증거로 삼기도 한다. 평 고기가 종기에 금기인 것은 반하(半夏) 때문이기도 하다. 반하생(半夏生)의 준말인 반하는 전남생과의 다년초로서 그 괴근(塊根·덩이뿌리)은 맵고 독성이 있거나 담, 해수, 구토 따위를 치료하는 데 쓰기도 한다. (중략) 평고기는 겨울철 대지가 얼었을 때에 올라야 하는데, 전순의가 이를 무시하고 문중에게 계속 섭취시킨 것은 고의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처방인 것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은 고전적 정경이 된 지 오래다. 그럴 수밖에 없다. 무소불위의 권력자는 입맛대로 역사의 기록을 수정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패자는 아니 사

계유정난·인조반정 후 개혁가와 수구세력의 충돌 반복  
문종·단종·예종·연산군·소현세자·효종·사도세자·효명세자...  
왕의 갑작스런 죽음과 암투·음모·배신의 역사 새롭게 조망  
2005년 출간 ‘조선왕 독살사건’ 양장본 재출간

자(死者)는 말이 없으니 더더욱 그럴 것이다. 가까운 조선의 역사도 상당부분 승자의 기록일 수 있다. 정쟁에서 승리한 이들은 ‘조작하려는’ 유혹을 느꼈을 것이다. 비단 조선의 얘기만이 아니라 근현대사의 역사 또한 그렇다.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을 했다. 영어신세가 된 지금의 두 전직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쌓인 적폐는 사실은 진실이나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변조한 것에서 비롯됐다. 역사는 이처럼 권력에 따라 휘발성이 강한 분야다. 그 가운데 최고 권력자인 왕의 신변과 관련한 내용은 더욱 그렇다. 조선사 최고의 논쟁을 일으키며 대중 역사서의 지평을 연 ‘조선왕 독살사건’은 그 같은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최근 역사학자 이덕일이 2005년 펴낸 ‘조선왕 독살사건’이 재출간됐다. 출간 13주년, 110쇄, 30만 부 돌파를 기념해 특별 양장본으로 출간된 책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읽히는 역사

분야 최고 스테디셀러다. 저자는 조선 왕 4명 중 1명이 독살당했다는 가정 하에 역사를 들여다본다. 만약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누가 왜 왕을 죽이려했을까. 저자는 풍부한 사료에 근거한 역사적 고증과 치밀한 추론으로 독자들을 매료시킨다. “입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한 것을 ‘군약신강’(君弱臣強)이라고 하는데,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 이 구조는 크게 두 개의 사건을 계기로 형성된다. 조선 전기는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즉위한 계유정난이고, 조선 후기는 율곡 이이를 중주로 삼는 서인들이 광해군을 내쫓고 집권한 인조반정이다.” 저자는 인조반정 이후 ‘군약신강’은 조선 사회만의 비밀이 아닌 청나라도 아는 사실이었다고 설명한다. 그 예로 북벌군주 효종이 송시열과 독대 직후 만 마흔 살이 안 돼 급사한 것이나, 만 열여덟 살에 보위에 오른 현종이 정권을 서인에서 남인으로 대체하다가 서른세 살에 급사한 사실을 든다. 저자가 책에서 파헤치는 구조는 비교적

간단하다. 조선 전기에는 계유정난을 계기로 공신집단이 생성되고 후기에는 인조반정을 일으킨 서인(노론) 독주체제가 완성된다. “조선 왕 독살의 구조는 계유정난과 인조반정 이후 형성된 공신집단과 거대 정당에 국왕·세자가 어떠한 사안을 두고 충돌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국왕·세자가 갑자기 죽거나 쫓겨나 죽는 경우가 반복되는 구조이다.” 그렇게 해서 죽은 왕들이 문종, 단종, 예종, 연산군이었다. 뿐만 아니라 소현세자, 효종, 현종, 경종, 사도세자, 정조, 효명세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후 정국은 공신집단과 서인(노론) 중심으로 회귀했다. 저자는 이 구조가 과거형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왕과 신하로 대변되는 권력 투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순을 개혁하려는 이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의 반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다산북스·각 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 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 ‘혼의 강마른 직립’ 박찬희 지음

계간 시산맥 서정시인으로 발간된 박찬희 시인의 ‘혼의 강마른 직립’은 고독의 정서가 깃들여 있다. ‘시간의 화석’에 이은 두 번째 시집에서 시인은 자신만의 고독을 울림 있는 시어로 형상화한다. “다만 나는 ‘단 하나의 시’를 찾아서 시의 숲을 향해 간다. 나는 그 ‘단 하나의 시’를 쓸 수 있을까? 누가 내게 ‘왜 시를 쓰는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한다. 나는 시가 세상을 구원하리라고 믿지 않는다. 다만 시를 쓰는 것이 나의 일상이기에 쓰는 것뿐이다.” 흔히 고독의 시인이라고 하면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떠올린다. 릴케는 ‘크고도 내적인 고독’ 속에 거주할 것을 강조했다. 무릇 모든 시인은 생애적으로 고독의 기질을 지녔다. 박찬희 시인의 작품 기저에 깔려 있는 것도 자신만의 세계를 견고히 지켜나가는 고독과 무관하지 않다. “쇠가 달구어질 때 나는 소리를 아니/ 우주가 깨지는 틈바구니를 뚫고/ 쏟아지는 유성의 갑갑한 비행 음/ 냉각수에 지지지는 증기의 폭주/ 사벨건 소리로 울어대는 무쇠의 자책// (중략) 겁에 질린 용암이 터지고/ 용기하는 격정에 몸서리치다가/ 활해(活海)로 달려가는 공방의 침묵을 타고/ 비틀거리는 혼의 강마른 직립이여...” 위의 작품 ‘고독의 형식’은 내면화와 외면화가 이루어지는 고독을 노래한다. 고독의 결과 그 안에는 ‘강마른 직립’의 형태를 갖추게 되며 그것의 실체는 ‘혼’이다. 문학박사인 유정이 시인은 해설에서 “이는 어떤 변명의 여지나 빈틈도 없는 엄격한 고독을 강조한다. 날카로운 고독, 공포에 가까운 고독”이라고 평한다. 한편 박 시인은 지난해 ‘문학의 봄’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으며 추모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산맥·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장자 놀고놀다’ 민웅기 편해

“장자는 내게 한 모금의 샘물이다. 내 갑갑한 영혼을 목 축이는 달디단 생명수다. 장자는 내게 하늘이다. 가물한 하늘 저편으로 나를 인도하여 비상(飛翔)하게 한다. 장자는 내게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와 같다. 그 심연의 깊이가 나를 이끌어준다. 장자는 내게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노거수와 같다. 그 아래서 쉬고(休) 닦고(修) 노닌다(遊).” 세계는 물질문명이 가져온 여러 폐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제 위기, 양극화, 생태환경의 변화 등 적잖은 문제가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장자의 사유를 토대로 치유와 지혜를 찾자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주인공 공은 ‘태극권과 노자’의 저자 민웅기 전 여수YMCA 사무총장. 민 작가는 최근 펴낸 ‘장자 놀고놀다’에서 오늘을 사는 독자들이 어떻게 하면 숨 쉬는 장자를 만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저자는 지난 해 여름 무등산 소요곡에서 장자와 한판 씨름을 하며 그의 글과 사상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 결과 한여름의 무더위도 잊은 채 그가 걸었던 길에 대한 흥모와 이해의 정을 도담계 쌓을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말 번역은 안동림, 오강남, 난 회이징 선생을 비롯한 선배 제현들의 번역을 참조했다. 저자는 “장자는 한 사람이나 한 권의 책에 그치지 않는 유류한 흐름이다. 큰 숲이다. 큰 가물이다. 역사적 시공을 타고 넘는 촛불이고, 물의 변화를 타면서 그 물에 빠지지 않는 유희삼매(遊藝三昧)”라며 “장자는 시공을 달리하며 다시 쓰는 깨달음의 소식이며 집단지성을 일깨우는 천둥과 벼락”이라고 밝혔다. 〈BOOKK·2만54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싸우는 식물’ 이나카기 히데히로 지음, 김선숙 옮김

식물이 살아가는 세계는 보이는 것처럼 평화로울까. ‘싸우는 식물’의 지은이인 이나카기 히데히로는 “식물도 치열한 싸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한다. 식물학자가 써내려간 흥미로운 지적 탐험의 기록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경이로운 식물의 세계로 안내한다. 지은이는 식물에 대한 오랜 연구와 깊은 통찰을 통해 자연계의 진실을 밝혀낸다. 생존의 각축장인 자연계에서 식물이 환경, 병원균, 곤충, 동물, 인간에 이르는 주변의 모든 것들과 투쟁하면서 펼치는 놀라운 전략과 전술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식물학책이지만 한 편의 드라마 혹은 다큐멘터리처럼 약육강식의 세계를 그려낸다. 흔히 ‘약자’로 여겨지는 식물이 생존을 위해 다양한 상대와 벌이는 싸움의 모습을 생동감 넘치게 담아내고 있다. 식물은 적을 속이고, 이용하고, 배신하고 끝내 동맹을 통해 공생하는 등 다양한 생존 전략을 구사한다. 소나무와 호두나무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 뿌리에서 나오는 물질로 주변 식물의 성장을 막으며 보이지 않는 화학전을 벌인다. 주변의 습격을 막으려 개미를 경호원으로 고용하는 식물들이 있는가 하면, 식물 세포는 병원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폭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배우기 위해 내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서평에서 알 수 있듯이 식물의 삶은 흡사 인간사를 들여다보듯 역동적이다. 책을 읽다 보면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이 자신의 자리에서 곳곳이 살아가며 성공과 균형을 이루어 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숲·1만4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 의명가**

- KCPBA 2016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우수브랜드상
- 2011 코리아엔브랜드상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 편안한착용감
- 부위별로 특별하게
- 탄성GOOD! 흡발속 GOOD!
-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 일본도레이社 LYCRA
- 별다른욕기형 사용
-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 이온, 실크이노산,
-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